社 說

교수 직위해제 요건

교원으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향상에 힘쓰며 특히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교수가 교수협의회장 출마의 변으로 대학실무 행정직 과장에 대한 비리협의와 부당성 지적을 함으로써 구성원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한 바 있다.

그 이후 대학 행정조직상 임의 단체인 교수협의회 회장직 수행에 있어서는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와 유인물 배포 그리고 현수막 게시를 통해 법인 이사회 및 종단 관련의 비위 및 부적절성을 질타함으로써 그 의도적 내용과 행위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 조성 및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해교행위이므로 징계에 회부한다.

이상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이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 정달영 교수를 직위해제 후 징계의결요구사유에 밝힌 내용이다.

직위해제 사유를 밝힌 사건 경유서에는 정 교수가 2004년8월26일 교수협의회장 출마의 변을 통해 대진대학교의 모든 일은 실무과장이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학교의 예산편성과 심의 및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2004년10월4일 본관 출입문에 부착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의 자체연임 결정 부당성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임시이사회를 구성할 당시 현 이사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차기 이사회는 종단의 원로 수임선감으로부터 추천받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연임한 것에 대해 교수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했다.

대진대학교 병설 G전문대학을 대진대학교와는 무관한 별도의 4년제 J대학교로 변경한 것은 이사장의 부당한 처사이며 교수협의회 회원 일동은 차기 4년간의 이사장직의 연임을 용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이사장은 대진대학교 박물관을 설립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방면의 도장 건물을 건축하여 소속 방면의 이익만을 추구하였기에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도 교수들의 급여인상 부결과 신임교수 선발이 무산된 것은 이사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예술관 건립 및 여학생 기숙사 노후 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4년10월13일 본관출입문에 부착한 학교법인 사무국의 몰지각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성명서는 10월5일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철거한 것은 중대한 교권 침해이며 떼어낸 성명서를 10월15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법인은 교수협의회가 여러차례 요청한 대화 요청을 번번이 묵살해왔으며 이후에 법인은 교수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촉구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성명서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문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했다.

2004년10월12일 전체교직원을 대상으로 1,2차 성명서를 첨부파일로 발송하고 교수협의회의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진대학교 교직원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2004년11월4일 전교직원에게 교수협의회의 성명서 일부내용에 대한 여주도장에서의 사과요청에 대하여 소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2004년11월26일 전교직원에게 '이제는 법인 사무국도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부패하지 않는 기구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인 사무국의 직원들로 정기적으로 순환시켜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11월29일 본교 진입로 현수막을 통해 "학교행정 유린하는 법인과장 인사조치하라", "학교 바로 세우려는 교협회장 징계획책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상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이 밝힌 교수협의회장 징계의결요구 사유서 및 직위해제 통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의 주요골자이다.

위 내용에 대해 정달용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은 물론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일사안에 대한 학교법인측과 교수협의회측의 상반된 입장을 감사 요청 진정서를 접수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조속히 판단해 줘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법 설명회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法준수 강조

지난 29일 포천시 상황실에서는 오는 4월 30일 실시될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예정자와 선거감시단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 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지난 29일 포천시청 상황실에서 오는 4월 30일 실시하는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감시단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 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설명회에서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요령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입후보에 따른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 선거가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선거인 만큼 후보자 등이 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신기 단속부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민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력하자"며 "후보자들은 법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리한 선거운동을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4.30 국회의원재선거 주요일정(案)

일 정	주요실시사항
3.28~4.14	▶예비후보자등록 ▶예비후보자사퇴신고 ▶예비후보자인영신고 ▶예비선거사무소 및 선거 사무원 선임신고 ▶회계책임자 및 비용 예금계좌 선임, 개설신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발송일전 2일까지)
4.11~4.15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4.10~4.16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4.14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예비후보자등록자)
4.15~4.16	▶후보자등록(09:00~17:00)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 ▶학력증명서제출 ▶재산, 병역, 납세신고 ▶경력방송원고제출(4.16까지)
4.17~4.29	▶현수막검인신청
4.19까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부재자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
4.22까지	▶매세대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
4.28까지	▶투표참관인 선임신고
4.29까지	▶개표참관인 선임신고
4.30	▶선거일(투표, 개표)

"세계 바둑인들 모인다"

포천 세계바둑 Festival 발족식

포천 세계바둑 Festival 추진위원회(위원장 유왕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포천 세계바둑 Festival 추진위원회는 포천시 승격 2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중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10여개국 1만여명이 참가하는 '포천 세계바둑 Festival'을 개최할 예정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바둑TV 박창규 해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는 김수영 프로9단과 조훈현 프로9단, 유창혁 프로9단, 서봉수 프로9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둑인들이 대거 참여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염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발족식에서 "시 승격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으로 바둑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바둑동호인들에게 포천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불우이웃돕기 자동이체 합시다"

본지 조사위원회 임원회의서 의결, 4월부터 추진키로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종현)가 지난 24일 오후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불우이웃돕기 창구운영에 있어 매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동이체키로 결의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임원회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자동이체하기로 했으며 애경사도 30만원씩 하기로 수정, 가결시켰다.

또 이날 영북면지부장에 손영배씨를 위촉했으며 창수면 지부장에는 김광분씨를 위촉해 영북면과 창수면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포천시청 주차장에 민원인의 차량보다는 시청직원의 차량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조사위원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시청 직원차량과 민원인 차량을 파악하자"고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또 김광분 창수면 지부장은 "현재 창수면은 축산폐수 문제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폐수의 근원지를 찾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사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24일 가진 제6차 임원회의에서 불우이웃돕기 자동이체를 의결, 4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사랑하는 포천 · 연천 주민 여러분께

이철우
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저는 다시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성 금요일이었고 우리 부부에게는 16년째 맞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선거법 위반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심 법원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노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법은 본래 강제적이기에 저에게 부과된 250만원의 벌금은 납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사적인 오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오심은 영원히 오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포천 연천 주민 여러분.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천·연천 아니 한탄강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45년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숱한 일들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선한 이웃을 통하여 저를 이끄시고 도우셨습니다.

가난하였기에 더욱 청렴하게, 검소하게 살았고 또한 단 하루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일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한탄강 사람들의 눈빛과 사랑의 언어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힘이 없었기에 남을 억누를 줄 몰랐고,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남위에 올라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였기에 몸과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포천·연천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살아왔던 다수의 유권자들이 부족하지만 이철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염원을 선거로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실로 50년만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염원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시대는 열렸습니다.

새시대의 도도한 물결을 되돌릴 사람은 없습니다.

꽃샘추위가 온다해서 겨울로 다시 돌아가지 않듯이 결코 역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한반도의 역사와 세계사속에서 운명적인 땅입니다. 가만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분단된 조국의 한가운데서 흐르는 한탄강의 여울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철조망 사이에서 피어나는 이름 모를 봄꽃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리요 모습입니다.

남 괴롭힐 능력도 마음도 없는 선한 이웃들, 그 성실함이 미련해 보일 정도로 부지런한 이웃들, 억울함이 있어도 가슴 속에 묻어 두는 것이 습관이 된 이웃들 저는 언제까지나 그 이웃들과 살아가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제가 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있습니다.

그 비밀한 축복이 저를 언제나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 포천·연천, 선한 이웃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은 세상을 바꾸려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부족한 제가 바뀌어 버린 1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물심양면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일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지만, 모든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여의도로 또 새벽에 집으로 오지 않아도 되니 여러분들을 한분 한분 만나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동안 저로 인해 인간적으로 섭섭했던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과거 정치인들같은 기대가 저에게는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섭섭함을 드렸을 것입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5년을 제 인생의 전반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포천. 연천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05. 3. 28 한탄강가에서 이철우 드림

포천시의회 제14회 임시회

시정질의 및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

제1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포천시의회(의장 최대종)는 제14회 임시회를 지난 25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함께 1차 본회의를 열어 제14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포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처리하고 본격적인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25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포천시정에 관한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면서 포천시 소관업무에 관해 감시했다.

또한 29일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는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포천시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 처리했으며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는 포천시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1건을 처리했다.

포천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독도 수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안건을 처리한 후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6년도 '선택형맞춤농정' 추진회의

4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 응모

포천시가 중국의 WTO 가입과 DDA 출범, 한·칠레간 FTA협상 타결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을 적극 전개한다.

포천시는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각 읍·면 산업담당과 농협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선택형맞춤농정 추진회의를 열고 사업 응모요령 등을 소개했다.

선택형 맞춤농정이란 지역특화 농정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보기술,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접목한 신기술개발과 품질 고급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축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농협, 축협, 전문생산자조직 등의 대규모 생산자단체는 물론, 작목반 등 소규모생산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단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는 응모할 수 없다.

또 농업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상향식으로 맞춤농정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선택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명품농업, 그린농업, 수출농업, 정보농업, 관광농업, 벤처농업 등으로 각 사업의 리더와 경영 및 마케팅에 관한 사전계획,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단, 가공농업은 2006년부터 사업분야에서 제외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준 포천시 농축산과장은 2004년도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공장 건립"과 "친환경사과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2005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마홀촌 브랜드의 "축산물 육가공공장 건립사업" 등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혁배 94spice@hanmail.net

'포천인삼' 명성 되찾자

포천인삼연구회 민관공동투자유치 필요성 제기

포천인삼연구회는 지난 17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포천인삼연구회(회장 서영교)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인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고향 포천시 인삼명성 되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포천인삼연구회원들은 민관공동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삼 연작장해 해소기술정립과 연구개발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인삼 신품종 보급률 확대 및 지원을 시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포천시장은 각종 지원을 통해 포천인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포천 지역 인삼재배면적은 총 348ha로 경기도 전체 인삼재배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혜의 기후조건과 ▶질 좋은 청정토양 ▶축적된 고품질 인삼재배기술 등으로 인해 전국 최고의 인삼재배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로 2002년 6월에 결성된 포천인삼연구회는 국내 유일의 우량 신품종 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희대, 밀양대, 영남대학교 및 KT&G, 그리고 경기도 제2농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시범연구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연구회원들은 또 자발적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와 농협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등에 적극 참여하며 인삼재배기술 및 자기능력개발에 힘쓰는 등 농업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 혁신 Work Shop

"변화하는 조직만이 영원할 수 있다"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목)는 지난 21일 경찰서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등 전 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의 실행 확산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혁신 워크샵에 앞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일반인과 경찰관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갖고 전·의경 사기진작으로 경찰행정 발전에 도움을 준 김성태 등 2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특수절도범 검거로 편안한 사회 정착에 노력한 박영술 경사 등 11명의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김영목 서장의 주재로 혁신의 실행 확산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서장은 '성공적 혁신문화 창출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맡은바 업무에 항상 문제의식·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무자세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 뿐 아니라 포천경찰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혁신추진을 당부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편집인 구봉주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